

편집후기

오늘은 천둥과 번개가 하루종일 빗소리와 함께 울려댁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떤 현장, 어떤 축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장마와 태풍 때면 겪어야하는 당연지사처럼. 올해 태풍은 예년과 달리 심한 폭우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몇 명 타지 않는 자동차는 수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수백 수천명이 이용하는 구조물의 안전은 그렇게 확인하지 않는 현실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미리미리 살펴서 그런 뉴스가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편집을 마치고나니 지난 삼십여년간 건축구조기술사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과 같이 우리 회지도 회원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실해졌다하는 생각이듭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하여 기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회원들의 활약이나 기술적인 면이 그만큼 크게 성장한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자 명단이나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원에도 우리회원들의 이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중일부의 회원은 그것을 통하여 좋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술적인 역량을 키우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상업적으로 흐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회원들의 활동무대가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은가 여겨지며,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 습니다. 암튼 많은 회원들이 좋은 설계기술, 좋은 공법, 좋은 제품의 개발자가 되어 이 시대의 건설기술 발전에 일조하고 부도 축적하기를 기대합니다. 혹 그렇게 되신다면 아직은 미약한(?) 우리회를 위하여 기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이땅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선배, 동료, 후배 회원은 물론이고 미래에 우리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구조인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호에도 바쁜 시간에도 흔쾌히 원고를 내어주시는 유병익 전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참여회사께 우리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친상의 황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조언해주신 차승렬부회장님께도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휴가철입니다. 회원님들 모두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황보석 우리회 편집출판위원회 이사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한 글		한 자	영 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 소 (-)		
직 장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		
E-Mail			

20 년 월 일

※ 작성하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Fax : (02)566-4729 / E-Mail : ksea@ksea.or.kr